

# 西厓 柳成龍과 安東·尙州 지역의 退溪學脈

金 昊 鍾\*

##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안동과 상주의 서애 문도 |
| II. 서애의 생애      | 1. 안동의 문도         |
| III. 서애와 퇴계의 관계 | 2. 상주의 문도         |
|                 | V. 맺음말            |

## I. 머리말

서애 류성룡(1542~1607)은 퇴계 李滉(1501~1570)의 고족 제자로 학행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증유의 국난인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한 후 이를 실천하는 한편 그것을 그의 문도들에게 전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말에 전래된 性理學은 조선 건국의 명분인 동시에 국가 통치상의 기본 이념으로 정착하였다. 건국 초기에서 15세기 말까지는 조선 성리학의 중심을 勳舊派들이 장악했으나 16세기에 이르러 퇴계가 대두하면서 그 축이 士林派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퇴계의 사상은 朱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의 우주관은 理氣二元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1)</sup> 이리하여 그는 주리론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주자와 같이 마음을 이성적 측면인 理와 감성적 측면인 氣의 습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퇴계가 주자의 입장에서 그의 이론을 출발하고 있지만 心性說같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 탐구하여 이룩한 독자

\*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이병도 『한국유학사략』 아세아 문화사, 1986, 145쪽

적인 것이었다.<sup>2)</sup>

이처럼 형성된 퇴계의 사상은 류성룡과 같은 그의 문도들에게 계승되어 하나의 學脈을 이루면서 당시 조선왕조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서애 류성룡이 어떻게 퇴계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그와 관련 깊은 안동과 상주 지방에서 그의 문도들에게 실시한 교육내용과 끼친 영향을 밝혀 보고자 시도한 작업이다. 이리하여 위의 지방에서 서애가 양성한 제자들 가운데 활약이 두드러진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을 추적함으로써 퇴계학맥의 전승양상에 대한 이해의 폭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서애의 생애

류성룡의 자는 而見이고 호는 서애로 그의 육대조부터 豊山에 우거함으로써 安東에 정착하게 되었다. 원래의 본관은 문화로 생각되지만 전해오는 문헌이 없으므로 보존되어 오는 호적에 의하여 선대 조상들을 추정하고 있는 형편이다.<sup>3)</sup>

서애는 1542년(중종37) 10월 1일 의성현 사촌리 외가에서 출생하여 1607년(선조40) 5월 6일에 별세하였으니 향년이 66세이었다. 그의 부친 류중영은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모친은 안동김씨로 안동에서 의성으로 이주한 재지사족의 후예였다. 그의 생애는 仕宦 과정에 의하여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니 우선 첫째 受學시절은 출생에서부터 文科에 급제한 1566년까지이다. 그는 4살부터 독서를 시작하여 8세 때는 『孟子』를 읽었다. 그 다음 『中庸』과 『大學』을 읽었는데, 수학시절 초기까지는 대체로 일정한 師門관계가 없이 주로 부친 등 가학 중심이었다.

그의 부친은 평소 退溪의 道를 흠모하여 누차 이를 자제들에게 칭송하였으

2) 최완기, 『한국 성리학의 맥』, 느티나무, 1989, 93쪽

3) 『서애전서』, 권3, 세보.

로 자연히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서애의 문과 급제 이전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형인 雲龍의 문집에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sup>4)</sup> 19세 때는 관악산에 들어가 스스로 유학 경전을 공부하였으며 21세인 1562년에는 형과 같이 퇴계 선생을 찾아가 『근사록』 등을 배웠다. 이 시기에 학봉 金誠一과 사귀면서 서로 칭찬하였으며, 그 이후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면서 상호 협조하게 되었다. 23세 때는 부친의 임지인 황해도 해주에 있는 신평사에서 독서하다가 그 이듬해는 그곳 文憲書院으로 옮겨 책을 읽었다.

25세 때인 1566년 과거에 급제한 이후로는 주로 벼슬길에서 治國에 주력하였으므로 道學공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의 학문적 성향은 퇴계의 영향으로 성리학을 위주로 하였으나, 한 때는 양명학 관계의 서적도 읽었다. 그러나 그것이 불교와 관련이 큰 것을 알고는 곧 퇴계의 학설을 독신하였다.<sup>5)</sup> 그는 비록 양명학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장점은 인정하여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하였다.<sup>6)</sup> 그의 身分觀에서는 양명학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어 功利的인 측면이 엿보인다.

서애의 사상을 통찰한다면 한마디로 '體用兼全' 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本末을 겸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유교 경전인 『大學』의 '격물치지'를 해석할 때도 이것을 究明(行)과 眞理(知)의 이원적 요소로 나누려고 하였다. 즉 만물의 이치를 구명하여 자기의 지식을 넓힌다는 뜻이다. 이때 근본인 知는 體요 그 知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用이 된다는 것이다.<sup>7)</sup> 즉 그는 본과 末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애는 문과 급제 후 승문원 권지부정자를 거쳐 예문관 검열에 천거되었다. 그 뒤 성균관 전적을 거쳐 공조 좌랑으로 특진했는데, 특진의 결정적 계기는 문소전의 儀軌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스승인 退溪가 차자를

4) 『검암집』, 권6, 연보 및 선부군행년기.

5) 『서애집』, 연보, 28세 때인 1569년에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 때 그 곳 太學生들과 학문을 토론하면서 서애는 陽明學이 禪學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6) 위의 책, 발서, 양명집후.

7) 송금섭, 「서애선생의 기본사상」, 『서애연구』1, 1978, 서애기념사업회.

올림으로서 시작되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仁宗의 神主를 별전인 연은전에 모시는 것은 禮儀에 어긋나므로 마땅히 文昭殿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퇴계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해 3월 병을 이유로 고향 안동 예안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서애는 퇴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정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상소하여 이를 바로 잡아 의례를 확립하였다.

1570년 퇴계선생이 사망하자 그는 같은 퇴계 문도인 동향의 학봉 김성일과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협력하게 되었으니 이 때 그의 나이는 29세였다. 그 이듬해 兵曹좌랑을 거쳐 32세에는 吏曹좌랑이 되었으나 이해에 부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3년상을 모신 후 35세 때인 선조 9년에는 言官으로 발탁되어 사간원 헌납으로 다시 관직에 나갔다. 36세 때인 1577년(선조 10)에는 홍문관 응교가 되었다. 이 해 인종의 비인 仁聖王后가 죽자 大臣과 禮官들은 선조가 상복을 1년간 입도록 주청하였다.<sup>9)</sup> 여기에 서애는 명분을 들어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명종이 인종에 대하여 계통의 명분이 있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적손으로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할머니를 위하여 承重服을 입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주청하였다.

그 결과 宣祖는 결국 3년복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서애는 동서 분당이 생기자 이를 염려하여 동지들과 진정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落鄉하고 말았다. 그는 36세 이후에 이미 東人의 대변자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의 정치적 입장이 당시의 公論을 이끌어 가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년 뒤인 38세때는 윤두수 등이 죄를 입고 파직되자 서애는 다시 벼슬에 올랐다.<sup>10)</sup>

서애가 尙州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의 나이 39세 때의 일로 이해에

8)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2월 기묘

9) 『서애집』, 연보, 36세.

10) 『선조실록』, 권13, 선조 12년 3월 경오.

그는 상주 牧使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유교사상에 투철하여 고향 안동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늙은 어머니에 대한 孝誠때문이었다. 그는 노모의 봉양을 위하여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 때 마침 안동과 가까운 상주 고을 목사 자리가 비게 되었다. 그러자 宣祖는 그를 좀 더 근거리에서 봉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것이다. 그가 상주 목사로 약 1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시행한 정책은 다음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주는 영남지방에서 큰 고을이므로 1년 동안 사용되는 경비가 매우 많아 거의 萬石에 이르렀다. 그는 관리들을 단속하고 염치를 기르며 근검절약을 실천한 결과 수백 석으로 줄이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서애는 施政의 근본을 禮儀와 謙讓으로 삼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여러 校生들을 데리고 문묘의 先聖들을 배알하였다. 그 다음 鄕校의 명륜당에 앉아 여러 교생들과 講論을 하면서 깊이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學政이 새롭게 되고 儒風이 크게 진작되었다.<sup>11)</sup>

고 했는데 상주 지방의 그의 제자들은 이때에 인연을 맺고 길러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이듬해 40세 때는 선조의 요청으로 다시 경직에 올라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41세인 선조 15년에는 言官의 최고 지위인 사간원 대사간과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는 한편 승정원의 도승지에 올라 公論에 의한 정책 구현에 진력하였다.

42세 때는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으며 이 해에 성리학자였던 회재 이언적(1491~1553)이 저술한 구경연의 발문을 지었다. 그는 이 당시 벌써 東人을 이끌어 가는 위치에 놓여 있었으므로 반대편의 견제를 받아 자주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子弟들이나 주변의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서애의 仕宦 과정상 사십대 후반의 시기는 대체로 정책 입안자의 위치에서 국정을 주도하는 형편에 있었다. 이를테면 47세 되는 1588년(선조21)에는 형조

11) 『서애집』, 연보, 39세(만력 8년 경진 봄).

판서에 취임하였으며 그 이듬해는 병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49세에 이르러서는 의정부 右議政에 올라 이조판서를 겸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처지였지만, 公論을 형성할 뿐 실제로 정국은 西人에 의하여 이끌어졌다. 1591년(선조24)에는 50세로서 左議政에 임명되어 왕의 특명으로 이조판서를 겸하였다. 이 무렵 日本의 정세가 더욱 심상치 않아 그에 대한 대응책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서애는 종래의 鎭管法을 복구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장수가 될 만한 인재로 이순신(1545~1598)과 권율(1537~1599)을 천거했던 것이다. 그 이듬해인 1592년(선조25)에는 미증유의 국난인 壬辰倭亂이 터졌다. 이 때 그는 특명으로 병조판서를 겸임하면서 일체의 군사업무를 총괄하였다. 곧이어 領議政에 올라 전시체제를 주도하면서 壬亂 극복에 심혈을 경주한 결과 전황이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 당사국간의 이해 상충으로 서애가 56세 되는 1597년(선조30) 정유재란이 발발하였으며, 그 이듬해 北人들은 서애를 탄핵하여 영의정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고향 安東으로 돌아와 은거하면서 후진 교육과 저술로 노후를 보내었다.

귀향한 그 다음해 서애는 58세가 되었는데 이후로 그는 주로 玉淵書堂에 머물면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후진양성과 저술 그리고 독서로 소일하였음을 다 음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

· 성극당 金弘微(1557~1605)와 性理學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였다.<sup>12)</sup>

· 퇴계 李滉(1501~1570)선생 문집의 年譜를 지었다.<sup>13)</sup>

· 陽明集을 읽고 朱子學과 양명학의 차이점을 구명하였다.<sup>14)</sup>

12) 위의 책, 연보, 58세 10월.

13) 같은 책, 연보, 59세 3월.

14) 『서애집』, 연보, 63세 9월.

이것 이외에도 징비록과 영모록 등을 저술하는 한편 우복 鄭經世(1563~1633) 등과는 『朱子書節要』와 같은 성리학 서적을 갖고 학문을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활동을 하다가 66세 때인 1607년(선조40)에 별세하였으니 고향 안동으로 은거한지 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 Ⅲ. 서애와 퇴계의 관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애와 퇴계는 같은 고향인 안동에서 태어나 명성을 높인 인물이며 그들은 또한 師弟 관계이기도 하였다. 즉 서애가 21세 때 형 겸암과 함께 陶山으로 퇴계선생을 찾아가 『近思錄』과 같은 유학서적을 배웠다.<sup>15)</sup> 이후 계속하여 퇴계의 문하에서 관계를 맺는 한편 지속적으로 문답하면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애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퇴계의 사상과 언행 가운데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가려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퇴계 李滉(1501~1570)은 조선왕조의 통치와 교화의 기본이념인 性理學에 심취하여 이를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뚜렷한 스승이나 학파적 계승이 없는 가운데 家學을 중심으로 儒學을 공부하게 되었다. 6살에 독서를 시작한 퇴계는 12살에 숙부 李堦(1469~1517)로부터 『論語』를 배움으로써 유학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sup>16)</sup> 그리하여 그 뒤 『心經附註』와 『性理大全』 및 『朱子大全』을 구하여 열심히 읽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조선의 성리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퇴계는 『심경부주』와 『성리대전』을 정독한 후에는 朱子の 사상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주자의 글을 적극적으로 구해 읽고자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43세 때 중종의 명으로 『주자대전』이 인쇄되어 반포되자, 그것을 구하여 두문 불출하면서 읽었다고 한다.<sup>17)</sup> 그는 체계적인 유학공부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

15) 위의책, 연보, 21세 9월.

16) 『퇴계집』, 연보 권1, 12세.

17) 이해영, 『안동시사』, 권2, 1999, 149쪽.

는데, 초학자는 먼저 계몽과 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小學』을 읽고 『근사록』과 『심경』을 숙독한 다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四書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래야만 聖賢의 말이 마디마다 맛이 있어서 장차 신상에 쓰일 곳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이 성리학을 계통적으로 공부한 그는 그것을 체득하여 신봉하게 되었 으므로,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는 그것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 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음을 다음 자료에서 볼 수 있겠다.

성리학이 倡道된 이래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매우 많으나 그 학문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어서 남아 있는 것이 적다. 宋史 본전과 朱子實紀 및 語類大全 一統志 등이 있을 뿐이다. 道學의 중요성을 천명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거짓된 학문을 금지하는 것이다. 孟子도 말한 바 있지만, 楊子나 墨 子の 학문과 떨어질 수 있는 자가 참으로 聖人의 무리이며 성리학을 존중하 는 사람만이 성리학도라 할 수 있다.<sup>19)</sup>

는 것으로 주자 성리학 이외의 잡학은 僞學이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道學인 주자학을 번성시키는 것이 참으로 천하의 公論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였 다.<sup>20)</sup> 퇴계는 평소에 늘 자신이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였으므로 언제나 일정 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學問의 길에서는 중단이 없이 계속해야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하였다.<sup>21)</sup>

그러므로 그는 老年에 이르러서도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心經』 읽는 것을 일과로 삼아 숙독하고 있었다. 특히 마음 공부를 시작하여 철학적 사색을 하려는 젊은 제자들에게 이 『심경』부터 정독하기를 권하곤 하였다. 그러 므로 66세 때에 그는 『心經後論』이라는 글을 지어 그때부터 조선왕조에서 간행 하는 『心經附註』에는 퇴계의 이 저술을 붙이게 되었으니 퇴계의 글 중에서도 가

18) 정순목, 『퇴계평전』, 지식산업사, 1987, 184쪽.

19) 『퇴계집』, 속집, 권8, 서, 이학통록서.

20) 위의 책, 이락연원록 발.

21) 위의 책, 권8, 이비원소장 회암시후서에 “대체로 학문의 길에서는 하루라도 나아가 지 않으면 반드시 하루정도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장 명문장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학문적 열성은 자연스럽게 유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부수적으로 그를 잇달아 科擧에 합격하도록 하여, 27세 때는 진사시험에서 1등을 했고 34세 때는 문과에 급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승문원 權知 副正字로 시작된 그의 仕宦은 시작되었던 것이다.<sup>23)</sup> 그러나 그의 속 마음은 벼슬에 있지 않고 산천에 유유자적하면서 독서와 교육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퇴계의 年譜에 의하면 그는 14세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했으며 특히 이 때 중국의 陶淵明이 지은 詩를 무척 사랑하여 그 작자까지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田園생활을 즐겼던 도연명을 좋아하게 된 이 생각은 그 뒤 그에게 큰 영향을 주어 요산요수하면서 시와 글을 짓게 하는 배경이 되었으니 그의 문집에 보이는 수많은 시와 글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퇴계는 과거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올라 권지부정자를 시작으로 꾸준히 승진을 계속하여 홍문관 부수찬과 형조정랑을 거쳐 52세 때는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그리고 67세에는 교육과 외교행정의 책임자인 禮曹判書에 올랐으며 그 이듬해에는 議政府의 右贊成으로 승진하였다.<sup>24)</sup>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 乞暇還鄉을 반복하였는데<sup>25)</sup> 그 이유는 대체로 稱病이나 母夫人을 모시는 문제였다.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는 아버이를 모시면서 산천에 유유자적하는 한편 제자들에 대한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그가 이와 같이 벼슬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주 사직 상소를 올리고 귀향하는 진짜 원인은 아마도 위에서 거론한 도연명의 영향과 시대적 상황이 좋지 않아 고향에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퇴계 이황이 살았던 시기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이 격화되어 충돌이 잦았

22) 최완기, 『한국성리학의 맥』, 느티나무, 1989, 89쪽.

23) 『퇴계집』, 연보, 권1, 27세 이후.

24) 위의 책, 연보, 해당 연령.

25) 『퇴계집』 권6에서 권8에 보이는 辭職을 요청하는 내용을 분석하면 疏가 3번 劄가 6번 辭狀과 啓辭가 모두 40여 번에 이르고 있다.

던 士禍期에 해당된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면 영남사림파의 정계 진출 또한 활발하여 퇴계를 비롯한 사대부들이 홍문관을 비롯한 언관직과 육조의 행정직에 진출하고 있었다. 이들 영남사림파의 戚臣政治에 대한 대응의식과 자세를 보면 퇴계의 경우는 대체로 온건하면서도 점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온건한 그의 성품과 가정환경 등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현실에서 그의 이상을 펼 수 없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명종의 잦은 부름을 사양하거나 마지못해 나아갔다가 곧 사직, 낙향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sup>26)</sup> 이러한 입장을 지닌 그는 가능하면 중앙의 관직을 벗어나는 한편 어머니 생전의 회망에 부응하려는 孝心에서 지방 고을 守令을 자원하여 48세 때는 丹陽郡守로 부임하고 약 1년 뒤에는 豊基郡守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sup>27)</sup> 군수 시절 그는 지방 교육과 교화에 주력하여 鄕校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49세 때의 12월에는 우리들이 주지하는 바이지만 풍기 군수로서 백운동 서원에 편액과 서적하사를 요청하여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생겨나게 하였다.<sup>28)</sup>

퇴계의 상술한 바와 같은 사상과 행동은 바로 그의 門徒들에게 영향을 주어 하나의 學脈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배경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그의 高弟 가운데 두드러진 존재인 서애 柳成龍의 경우를 고찰하기로 하겠다.

서사에서애는 자라면서 家學 등을 통하여 퇴계 이황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가 직접 퇴계를 찾아가 교육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21세 때인 1562년(명종17)이었다. 이 때 서애는 그의 형인 검암 柳雲龍과 함께 퇴계를 도산으로 찾아 뵙고 여러 달을 거기에 머물면서 『近思錄』등 유학 서적을 배웠다. 퇴계는 서애를 보고 나서 하늘이 낳은 인재라 칭찬하면서 뒤에 반드시 大儒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시기에 학봉 金誠一과 교류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칭찬하였는데 이후 宦歷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학봉이

26)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129~130쪽.

27) 『퇴계집』, 연보 권1, 48세 1월 및 10월.

28) 위의 책, 연보 권1, 49세 12월.

일본에 부사로 다녀온 뒤 곤경에 처했을 때 적극 그를 변호하는 등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였다.<sup>29)</sup>

이와 같이 그는 퇴계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신으로 연락을 계속하면서 의문 사항을 문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봉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퇴계의 제자들끼리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일정한 학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애가 퇴계로부터 받은 영향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골라 서술해 본다면, 우선 性理學을 학문의 정통으로 삼고 이를 연구 실천했다는 점이다. 그도 젊은 시절 한 때 陸王學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저술을 읽기도 했으나 그것이 불교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곧 朱子와 退溪學說을 篤信하여 이를 옹호하고자 노력하였다.<sup>30)</sup> 당시 명나라 태학생들은 서애의 정연한 논리 전개에 탄복했으며, 그 가운데 학사 吳京은 그를 옥하관까지 전송했는데, 이 때 서애는 퇴계의 聖學十圖를 보여 주면서 이를 설명하였다.

그 뒤 귀국하여 틈이 생길 때마다 子弟들과 門徒들에게 성리학 관계 서적을 정사 숙독하도록 권장했는데, 다음 기록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四書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府庫와 같다. 만약 이와 같은 근본이 없다면 비록 다른 책들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숙독하여 외울 수 있도록 하여라.<sup>31)</sup>

하고 그의 아들과 생질들에게 당부했던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평소 유학 서적 중에서도 『大學』과 『小學』 『心學圖說』등을 매우 중시하여 이를 힘써 배우고 실천하도록 강조하였다.<sup>32)</sup> 서애도 이 영향을 받았는지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숙독한 후의 소감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하고 있다.<sup>33)</sup>

29) 『징비록』, 권1, 김성일의 논죄문제.

30) 『서애집』, 연보, 28세때인 1569년 10월에 성절사 서장관으로 중국 燕京에 갔을 때 그 곳 太學生들이 道學의 宗師가 王陽明과 陳白沙라고 하자, 서애는 양명학은 오로지 禪學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배격했다.

31) 『서애집』, 본집, 권12, 서, 기, 자진 및 양생 등.

32) 『퇴계집』, 권7, 차, 소학제사, 대학경, 심학도설 등.

33) 『서애집』, 권2, 시, 독대학유감.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이 사환과정 가운데 스승 퇴계와 같이 지방 군현의 守丞을 자원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퇴계는 모부인 박씨가 생전에 늘 지방 고을 수령되기를 기원했는데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양 군수에 취임했던 것이다. 서애도 그 영향 때문인지 39세 때인 1580(선조 13) 중앙의 淸要職인 홍문관 부제학자리를 버리고 지방 수령 자리인 尙州 牧使로 부임하였다.<sup>34)</sup> 그 이유도 모부인 김씨를 가까운 거리에서 봉양하기 위해서였으므로 퇴계의 생각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당시 서애도 스승 퇴계와 같이 지방 수령으로서 향교를 중심으로 유학 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힘썼으며 상주 지방의 제자들은 이 때에 형성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환 중에 비교적 자주 사직 상소를 올렸다는 사실이다. 물론 스승 퇴계와 같이 그렇게 빈번한 회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사직을 요청한 것만은 엄연한 일이다.<sup>35)</sup> 서애가 사직의 뜻을 밝힌 중요한 이유는 반대적인 봉당 인사들과의 대립 갈등이거나 그들의 모함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와, 조정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sup>36)</sup> 등에서 제기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서애도 퇴계처럼 조용한 산천을 찾아 유유자격하면서 그곳에 書堂을 지어 제자들 교육에 힘썼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遠志精舍와 玉淵書堂 등을 지어 풍류를 즐기면서 제자들 가르치기를 좋아했는데, 다음 자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겠다.

내가 이미 원지정사를 지었으나 한탄스러운 것은 그 곳이 마을과 멀지않아 시끄럽고 분주하다는 사실이다. … 그런데 이 곳은 낙동강가 절벽에 위치하여 배가 아니면 통할 수 없고 인가가 멀어 그윽히 세상과 떨어져 지내기에 적당하다.<sup>37)</sup>

고 하면서 그 곳에 옥연서당 현판을 걸고 君子로서 道를 중시해 가면서 저술과

34) 위의 책, 권3, 소, 걸군편양소, 경진 정월.

35) 위의 책, 권3, 소, 사 예조판서소를 위시하여 사직의 뜻이 담긴 글이 많이 보인다.

36) 『선조실록』, 권55, 27년 9월 경인.

37) 『서애집』, 본집, 권16, 잡저, 기, 옥연서당기.

교육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서애가 스승 退溪로부터 받은 영향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고찰해 보았는데, 이것 이외에도 끼친 영향으로 그들의 문집을 통하여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는 늘 스승을 사모하여 동경하면서 사상과 학문을 계승하고자 노력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절실했던지 퇴계에 대한 꿈을 자주 꾸곤 하였다.<sup>38)</sup> 이런 긴밀한 관계 때문인지 서애는 스승 퇴계를 기리는 활동에 빈번히 가담했을 뿐 아니라, 그의 학통과 사상을 그대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계승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에 관한 사실을 몇 가지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서애는 퇴계의 문집 편찬에 가담하여 年譜를 지었는데, 당시 안동지방 선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서애를 찾아가 연보 작성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함으로써 士論을 따랐던 것이다.<sup>39)</sup>

다음에는 여강서원에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시는 봉안 제문을 작성하면서 퇴계의 학문상의 업적과 인품을 찬양하였다. 그는 특히 이 글에서 선생이 이룩한 성리학적 도학은 앞으로 쇠퇴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승을 기리는데 앞장서게 되었다.<sup>40)</sup> 뿐 만 아니라 퇴계의 서간문을 비롯한 글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일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풀이나 나무가 근본이 되는 뿌리가 있어야 가지나 잎이 무성할 수 있는 것처럼 학문이나 기타 모든 일은 연원과 계통을 분명히 가져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41)</sup>

이와 같이 서애는 퇴계의 사상과 학통을 이어받아 이것을 현실에 구체화 하면서 성장발전시키는데 노력하는 한편 그의 제자들에게 물려주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애가 정치 일선에서 정국을 이끌어 갈 때나 교육 현장 활동을 전개할 때에도 차이가 없었지만, 특히 제자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지닐 때 보다 적극성을 가졌다. 그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보낸 수많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38) 위의 책, 권1, 시, 퇴도선생집중 유차 이백…시야 몽건 선생.

39) 위의 책, 연보 59세.

40) 위의 책, 본집 권19, 제문, 여강서원 퇴계선생봉안제문.

41) 위의 책, 본집 권18, 발, 서, 이굉중 소장 퇴계 선생 서간첩후.

것으로<sup>42)</sup> 이러한 서애의 노력이 退溪學脈을 이어 가는데 큰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서애가 퇴계의 학통을 올바르게 이어받아 많은 인재를 길렀는데 그의 門下에는 정경세, 이준, 허균, 이진, 김응조, 김봉조, 장홍효, 류진 등 명류 碩學 등이 배출되었으며, 退溪學脈의 일대 문호를 열었다는 지적은<sup>43)</sup>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 IV. 안동과 상주의 서애 문도

서애의 문도는 얼마나 될까. 우선 그의 문집 부록편 가운데 門賢錄에 실려 있는 문도 숫자를 조사하여 보면 118명이다. 이들은 대체로 그가 귀향하여 있을 때나, 혹은 벼슬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인연을 맺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교육할 시간이 비교적 많았던 그의 고향 안동과 지방 守畝으로 근무하면서 유학교육진흥에 힘을 기울인 상주 지역에서 양성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교육하는 양상과 그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의 양 지역 제자들 가운데 편의상, 비교적 역할이 두드러진 제자들을 골라 퇴계학맥 전승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먼저 서애의 고향 안동지역부터 구명하여 보겠다.

##### 1. 안동의 문도

安東은 동쪽으로는 진보와 경계하고 서쪽에는 예천과 경계하며 남쪽은 의성, 북쪽으로는 榮川과 경계하는데, 도성과는 514리 떨어져 있다.<sup>44)</sup> 우리나라에 性理學을 최초로 전래한 安珦(1243~1306)도 당시 안동의 속현인 순흥 지방

42) 위의 책, 권1, 시, 「기 정내한 경임」도 그러한 사례중의 하나이다.

43) 정순목, 앞의 책, 146~147쪽.

44) 『여지도서』,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출신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북부 지방은 태백산맥과 소맥산맥이 동북서쪽을 가로막고 인근에는 낙동강이 관류하여 外敵의 침입이 적은 비교적 안정된 지방이다. 이런 곳은 학문하기에 좋다고 인식되었는데, 조선후기의 실학자 李重煥(1690~?)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경상)左道는 백성이 가난하여 근색하게 살아도 문학하는 선비들이 많다... 예안·안동·순흥·영천·예천 등의 고을은 二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신이 알려준 복된 지역이다... 예안은 퇴계 이황의 고향이며, 안동은 서애 류성룡의 고향이다... 이들 고을에 士大夫가 제일 많으며 모두 퇴계와 서애의 문하생의 자손들이다. 의리를 밝히고 도학을 중하게 여겨 외딴 마을 최잔한 촌락에도 글읽는 소리가 들리고 도덕과 性命을 말한다.<sup>45)</sup>

라고 그러한 사정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북부지방의 文風을 배경으로 서애는 퇴계로부터 유학을 제대로 익힐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토대로 틈틈이 문도들에게 교육을 베풀었던 것이다. 그럼 그의 문헌록을 중심으로 안동지방 門人들 가운데 퇴계학맥을 제대로 이었다고 생각되는, 몇 분을 골라 그들의 유학적 활동과 학문적 경향을 고찰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張興孝(1564~?)는 태사 張吉의 후손으로 호를 敬堂이라 하였다. 어릴 때부터 鶴峰을 통하여 내외의 분수를 알았고, 다시 西厓를 스승으로 섬겨 몸을 닦는 학습을 하였다. 그 뒤 鄭述(1543~1620)와 張顯光(1554~1637) 등 유학자들을 따라 공부에 힘써 학문이 넓어졌다. 천거로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죽었다. 그는 그의 문집에서 서애를 말하기를 “일찌기 퇴계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므로 학문의 淵源이 있고 유학의 正脈을 얻었다. 인덕은 높고 업적은 무성하여 유학의 영수가 되었으며 後進들을 이끌어 몸소 가르쳤다.” 라고 적어 놓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서애의 셋째 아들인 柳稔을 도학의 誠

45) 『택리지』, 팔도총론 경상도.

과 敬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경당은 평생동안 유학공부와 후진 양상에 노력하다가 처사로 생을 마감한 순수한 학자이었다.<sup>46)</sup>

· 金奉祖(1572~1630)는 그의 동생인 榮祖·應祖 등과 함께 서애에게 학문을 배운 학자로 호는 鶴湖이다. 그는 광해군 5년(1613) 문과에 급제한 뒤 典籍을 거쳐 禮曹參政을 역임하였다. 특히 그는 스승 서애에게 爲己學을 열심히 배웠으며, 鄭仁弘 등이 退溪와 晦齋 등을 모함하자 격분하여 영남 유림대표로 정인홍 규탄에 앞장서서 퇴계 학통을 사수하였다. 그가 성균관 司藝로 근무할 때는 유생들의 기풍을 교정하기 위하여 小學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유학의 실천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스승 서애를 기리는 제문에서 “나날이 心學을 새롭게 전하고 忠孝를 잇도록 하는 한편 異端을 배격하게 하여 퇴계의 사상과 학문을 계승하였다” 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애가 상주지방에서 기른 제자인 李堧 등과도 친밀하게 지내 유대를 강화했던 것이다.<sup>47)</sup>

· 裊龍吉(1556~1609)은 호가 琴易堂으로 관찰사 삼익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한 뒤 한림을 거쳐 都事에 이르렀다. 그의 아버지도 역시 퇴계의 문인으로 성리학에 밝았으므로 가학의 바탕 위에 서애의 가르침이 더하여졌으므로 특히 忠義에 투철하였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의병을 일으켜 큰 전공을 올리기도 했는데, 金垓와의 합동 전투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정인홍이 『南明集』발문에서 퇴계선생을 헐뜯자 퇴계학맥을 고수하기 위하여 변설을 지어 크게 공격하였다. 그가 『주자어류』를 상고하여 “喪을 듣고 成服하는데 앞뒤가 있다면 除服하는데도 마땅히 선후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자 뒤에 西厓가 이를 듣고 글을 보내어 칭찬하기를 “근래 선비들 가운데 이러한 문자로 주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격려하였다.<sup>48)</sup>

· 金得研(1555~1636)은 호를 葛峰이라 하는데 선조 계묘년에 사마시에 뽑혔다. 그는 평소 經史에 관심이 많아 이를 열심히 배워 실현하고자 했는데, 임

46) 『경당집』, 『증보문헌비고』, 『여지도서』 등에서 종합.

47) 『학호집』, 『광해군일기』, 『국조문과방목』 등에서 종합.

48) 『금역당집』, 『국조문과방목』, 『영남인물고』 등에서 종합.



진왜란이 터지자 창의에 앞장서는 한편 군량관리에 공정을 기하였다. 당시 그의 성리학에 대한 지식이 그대로 드러났는지 명나라 장수 양호는 그에게 시를 지어 주면서 말하기를 “程朱의 학문에 종사하였구나” 라고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도 서애의 기풍을 이어 받았는지 동료들과 더불어 낙동강 주변의 산수 경관이 좋은 곳을 즐겨 찾으며 도의를 논하고 시를 읊었다. 그는 퇴계의 문인인 서애, 월천, 한강 등에게 두루 배운 탓인지 퇴계의 도산서원을 그리는 시 두편을 지었다.<sup>49)</sup>

· 權 紀(1546~1624)는 호가 龍巒으로 안동의 처사이다. 서애와 학봉 등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의 이론을 배웠다. 會試에 여러 번 낙방한 뒤 순수 성리학에 몰두하여 유학경전·제자백가·禮文·지리 등에 두루 통달하였다. 그는 서애의 권유를 받아 안동의 향토지인 『영가지』편찬에 착수하여 7년간의 노력 끝에 1608년 이를 완성하였다. 유학의 실천 윤리 측면에도 힘을 기울여 충효의 구현에도 진력하였으며,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퇴계 선생을 늘 생각하면서 숭배하였다.<sup>50)</sup>

· 金允安(1560~1620)은 호가 東籬로 풍산현 구담에서 출생하여 광해군 임자년에 문과 급제후 부사를 지냈다. 그의 아버지 傳는 일찍 죽었고 어머니는 퇴계선생 셋째형의 딸이다. 19세 때 하회에 일시 귀향하여 온 서애를 찾아가 학습한 뒤로는, 그가 귀향할 때마다 방문하면서 모르는 곳을 질문하며 사제간의 정을 쌓았다. 그는 겸암, 서애, 학봉, 한강 등 여러 스승을 두루 섬기며 학문을 심화시켰으나 그 가운데 서애를 가장 오래 섬기면서 배웠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 金垓를 따라 다니며 격문을 쓰는 등 진력하였다. 선조 때 퇴계를 비롯한 5현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자, 영남 유림들이 상소하는 일에 우두머리가 되었다. 대구부사 시절 정인홍의 힘을 믿고 날뛰는 자가 있어 이를 잡아 엄벌하였다. 상주의 우복 정경세와 더불어 서애학맥의 핵심적 인물로서 서애가 죽은 뒤 병산서원 제향 사업에 앞장섰던 것이다.<sup>51)</sup>

49) 『갈봉집』, 『서애집』 문헌록.

50) 『용만집』, 『영가지』, 서문.

51) 『동리집』, 『국조문과방목』, 『선조실록』 등에서 종합.

· 鄭 侗(1569~1639)은 호를 松塢라 하였는데 현감 사성의 아들이다. 일찍이 서애와 학봉 등에게 배웠으며 1601년에는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광해군 때 정국의 혼란으로 문과는 포기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남인들도 다시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그도 學行으로 천거되어 의금부 都事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부임하지 않고 처사로 일관하였다. 그는 재야에 있으면서 성리학연구에 주력하는 한편 제자들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의 아버지 사성은 퇴계의 문인이었으므로 가학에 있어서도 퇴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9살 때 그는 이미 7언시에 능하였다.<sup>52)</sup>

· 權益昌(1562~1645)은 호가 湖陽으로 일찍이 학봉과 서애 두 선생을 찾아 문하생이 되었다. 거기서 그는 正人君子論을 배우는 한편 사서오경·소학·근사록·심경·태극도설·중용혹문·대학혹문·주서절요 등과 같은 성리학 관계서적을 배우고 외웠다. 월천 조목이 그가 강설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권익창이 易註를 모두 외우고 아울러 여러 가지 서책을 모두 통달하니 참으로 두렵구나” 라고 하였다. 그는 한 번도 벼슬길에 소명을 받지 않고 순수 處士로서 일생을 학문과 교육에만 심혈을 기울여 퇴계 정신을 이어나갔다.<sup>53)</sup>

· 鄭士信(1558~1619)은 호를 梅窓이라 하는데 일찍이 서애 문하에서 유학을 깨우쳤다. 1582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감찰·정언 등을 거쳐 임진왜란 때는 지평으로 있었다. 그는 왜란때 강원도 지방에서 土兵들을 모아 왜적을 많이 살해하였는데, 전란이 끝나자 선산군수를 지낸 뒤 판결사가 되었다. 경연에서 경사를 진강할 때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여 왕도 해박한 그 지식에 놀라 자주 칭찬하였다. 그런데 그는 이이첨의 비방을 빈번히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실력이 그를 능가하여 질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sup>54)</sup>

· 柳宗介(1558~1592)는 자를 季裕라고 하며 풍산인이다. 일찍이 서애와 월천의 문하에 들어가 의리와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1585년 문과에 급제한 다음

52) 『송오집』, 『서애집』, 문헌록.

53) 『호양집』, 『서애집』, 문헌록, 『월천집』 등에서 종합.

54) 『매창집』, 『선조실록』, 『영남인물고』 등에서 종합.

정언과 전적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의병 수백 명을 끌어모아 봉화 소천일대의 태백산맥 일대를 무대로 큰 전과를 올리다 소천 전피현 전투에서 죽었다. 조정에서는 그의 충의를 기리기 위하여 정려를 세우고 예조참의를 추증하였다.<sup>55)</sup>

·李珍(1555~1628)은 호가 磨巖으로 예안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希仁이었으나 숙부인 純仁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일찍이 서애의 제자가 되어 유학공부에 힘을 쏟았으며, 서애의 상주지역 제자인 정경세·김홍미 등과도 친분이 두터워 교류가 잦았다. 그는 성리학의 이론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도 주력하여 지방 사대부들의 존경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는 화왕산 전투에 공이 있어 원종공훈에 책록되었으며 군자감 주부를 지냈다. 저서로는 임진왜란 견문록인 『斷編』이 있고 시 몇 수가 전한다.<sup>56)</sup>

이상으로 서애의 안동 지역 제자들 가운데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 그들의 수학과정과 교육내용 그리고 사상과 사회적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체로 서애를 통하여 퇴계 사상을 체득하고 이것을 계승 전파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스승의 제자들보다도 유대를 맺고 퇴계의 학맥을 이어가기에 힘을 기울였다.

## 2. 상주의 문도

尙州는 동쪽에는 의성 비안과 경계하고 남으로는 선산 및 金山과 경계하며 서쪽으로는 충청도 보은과 경계를 하고 북으로는 문경 및 함창과 경계하는데 도성으로부터는 477리 떨어져 있다.<sup>57)</sup> 이 곳은 본래 沙伐國으로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중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상주는 조령 밑에 있는 하나의 큰 도회지로서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55) 『선조실록』, 『국조인물지』, 『국조문과방목』 등에서 종합.

56) 『마암집』, 『선조실록』 등에서 종합.

57) 『여지도서』, 경상도 상주목.

북쪽으로 조령과 가까워 충청 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에 임하여 김해 동래와 통한다... 이 지방에 부유한 자가 많고 이름난 선비와 높은 벼슬 지낸 분도 많은데, 우복 정경세와 창석 이준 등이 모두 이 고을 사람이다.<sup>58)</sup>

라고 했는데, 이 지역의 서애 문도 발생 배경은 그가 노모 봉양을 위하여 고향과 가까운 이 곳 수령으로 부임하면서 부터이다. 즉 서애 柳成龍은 만력 경진년(1580)에 이 고을 牧使로 와서 儒學 진흥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였다. 이를테면 매월 초하룻날 鄉校에 도착하여 여러 교생들을 모아 놓고 유학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面에는 훈장을 두고 촌락의 자제들을 가르치게 하였다.<sup>59)</sup> 이와 같이 상주 목사로 재직하면서 맺어진 사제관계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이어졌는데, 지금부터 그러한 제자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鄭經世(1563~1633)는 호를 愚伏이라 하는데 어릴 때 서애에게 성리학을 수학한 뒤 17세기 전반에는 영남 출신 남인으로 퇴계학파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의 학문은 서애로부터 나왔고 서애의 학문은 퇴계로부터 나왔으므로 서로 학맥으로 연결되어진 셈이다. 그는 이같은 성리학적 바탕을 토대로 1586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치다가 임진왜란을 맞자 의병을 모집 큰 전공을 올렸다. 그 뒤 정언과 사간을 거쳐 1598년에는 경상도 감사가 되었다가 대사헌이 된 후 1629년에는 이조판서 겸 대제학에 올랐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그는 서애를 평생 스승으로 존경하면서 수시로 상서하여 의문을 푸는 한편 안동지방의 서애 문생들과도 우의를 다져 나갔는데 그러한 사실은 그의 문집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서애의 셋째 아들인 衿의 스승이 되었으므로 대를 이어가면서 사제관계를 맺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울곡 李珣의 제자 및 재전제자들과도 일정한 교류를 하여 퇴계학을 더욱 확대 심화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sup>60)</sup>

58) 『택리지』, 팔도총론, 경상도.

59) 『여지도서』, 경상도 상주목 명환.

60) 『우복집』, 『인조실록』, 『국조인물고』 등에서 종합.

·李垓(1560~1635)은 호가 蒼石인데 친형 李堧과 같이 서애에게 유학을 배웠다. 1591년 문과에 급제한 뒤 교서관 정자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친구인 정경세와 같이 의병을 일으켜 상당한 전공을 올렸다. 그 뒤 경상도 도사를 거쳐 지평이 되었다. 광해군때 제용감 정을 거쳐 교리에 올랐으나 집권당인 대북파의 횡포가 심해지자 사직하고 말았다. 정묘호란이 발생하자 다시 의병을 일으키는 한편 전라도로 가서 군량미를 많이 모은 공으로 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곧 부제학에 올랐다. 그는 스승 서애가 반대파인 대북파들에게 물리자 그 부당성을 임금께 호소하는 동시에 변호하는 일에 적극 앞장섰다. 평소 義와 禮를 중시했으며, 반대파인 정인홍 등이 상소하여 사숙하던 회재와 퇴계를 헐뜯자 그 부당성을 들어 거듭 상소하였다.<sup>61)</sup>

·全滉(1563~1642)은 호가 沙西로 서애에게 학문과 의리를 수학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올린 뒤 찰방이 되었는데, 그 다음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그러나 광해군 집권후 낙향하여 죽마고우인 우복·창석과 더불어 山水를 즐기니 사람들은 商山三老라고 불렀다. 광해군 초기 대북파들이 정인홍을 높이어 맹주로 삼고 무리를 이름에 사람들이 두려워 하였으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어전에 나가 정당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 뒤 인조반정으로 다시 예조정랑에 발탁되었으며, 곧이어 교리를 거쳐 1628년에는 대사간에 올랐다. 병자호란 때 다시 의병을 모아 적을 방어코자 했으며 1642년 대사헌이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있다가 죽었다.<sup>62)</sup>

·金弘微(1557~1605)는 호를 省克堂이라 했는데 서애의 문하에서 도덕과 의리의 본체를 배웠다. 그 뒤 經史를 숙독하고 특히 성리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585년 문과에 급제한 뒤 부수찬을 거쳐 경상좌도 도사가 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이듬해 귀향하였다. 그 후에 이조정랑·응교·동부승지·대사간 등에 취임하였으며, 1598년 형조참의를 거쳐 1604년 강릉부사에 임명되어 신병을 무릅쓰고 부임했으나 그 이듬해 병세가 악화되어 49세로 관아에서 죽었다.

61) 『창석집』, 『인조실록』, 『국조인물고』 등에서 종합.

62) 『사서집』, 『인조실록』, 『국조인물고』 등에서 종합.

그는 평소 서애와 성리학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자주 논의하였으므로 더욱 관계가 깊었다.<sup>63)</sup>

· 曹友仁(1561~1625)은 호가 梅湖인데 서애로부터 의리와 성리학의 이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 뒤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관원이 되었으나 반대파인 이이첨 등의 모함을 받아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그들이 축출되자 다시 기용되어 우부승지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퇴계의 학통을 지키기 위하여 평소 노력하였으며 이에 반대되는 자들에게는 극렬히 저항하였다. 그러므로 정인홍 등에 핍박을 장기간 받아 자주 물러났던 것이다. 그는 유학경전을 근본으로 하면서 정주학에 대한 책들을 정독했는데, 틈틈이 그림 그리기와 글씨쓰기, 글짓기 등에도 관심이 컸다. 평소 山水를 좋아하여 매호정사를 짓고 유유자적 하였다.<sup>64)</sup>

· 成泳(1547~1623)은 호를 苔庭이라 하며 그의 동생인 聽竹 浹과 같이 서애에게 유학을 배웠다. 임진왜란 때 경기순찰사로서 군사 3천여 명을 이끌고 참전하여 전공을 올렸다. 그 뒤 호조참판을 거쳐 병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냈으나, 광해군때 집권세력인 대북파 정인홍 등의 모함을 받아 파직당하였다. 그는 소신이 강하여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귀양가게 되었으며 마침내 배소에서 죽고 말았다.<sup>65)</sup>

· 柳軫(1582~1635)은 호가 修巖으로 서애의 셋째 아들인 동시에 제자로 되어 있다. 그는 아버지 서애로부터 가학적인 바탕에서 유학교육을 받아 진사시험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誠 과 敬을 위주로 공부했는데 추천으로 현감과 지평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반대파의 모함으로父가 낙향함에 그는 성리학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 서애는 늘 그의 학문적 자질을 보고 퇴계 선생 밑에서 직접 배우지 못했음을 한탄하곤 하였다. 그는 山水를 즐기는 한편 다른 스승인 상주에 사는 우복 선생과 학문적 교류의 편의성 등으로 37세 때 상주 낙동강변에 있는 가사리로 이사하였다. 그리하여 안동과 상주에 거주하던 그의 학문상의

63) 『성극당집』, 『선조실록』, 『국조인물고』 등에서 종합.

64) 『매호집』, 『국조인물고』, 『영남인물고』 등에서 종합.

65) 『태정집』, 『청죽집』, 『광해군일기』 등에서 종합.

벗들은 낙동강 물길을 오가며, 두 고을 사대부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공동 목표를 추구했던 것이다. 수암은 이 곳 중동 가사리에 살면서 퇴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웃 선비들과 협동으로 중동현에서 鄉約을 실시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진작할 수 있었다.<sup>66)</sup>

· 趙翊(1556~1613)은 호를 可畦라 하는데 서애와 한강으로부터 성리학을 배웠다. 그것을 바탕으로 1588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다음 벼슬길에 들어서서 병조좌랑을 거쳐 光州 목사를 한 뒤 장령까지 올랐다. 그는 주자학을 공부한 탓인지 언행이 방정하고 강직했으며 문장력이 뛰어나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의 문집인 『가휴집』에는 그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기록한 내용인 『진사일기』도 수록되어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sup>67)</sup>

· 高仁繼(1564~1647)는 호가 月峰으로 16세 때 서애에게 유학교육을 받은 뒤 1605년에는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이듬해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뒤 벼슬길에 올라 박사를 역임하는 도중 대북파에 가담을 반대하다가 지방의 찰방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다가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실각하면서 반대파가 몰락하자 다시 빛을 보아 형조정랑과 충청도사 등을 역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퇴계학의 학통을 지켜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그것은 스승들의 교육 영향으로 생각된다.<sup>68)</sup>

· 李堧(1558~1648)은 호를 月澗이라 하는데 그의 동생 蒼石과 더불어 약관에 서애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웠다. 그후 사미시에 합격하여 학행으로 천거를 받아 세마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인조반정 후 대북파 실각으로 다시 지례현감에 발령되었지만 역시 사퇴하고 말았다. 그는 창석과 함께 서애로부터 퇴계의 학설을 배운 이후 늘 이것을 연구 보급하는 한편 심신을 義와 理로 순화시켰다. 무신년에 영남 사대부들이 오현을 문묘에 종사하자고 상소할 때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만년에는 상주 청리에 있는 시냇가에 집을 짓고 성리학 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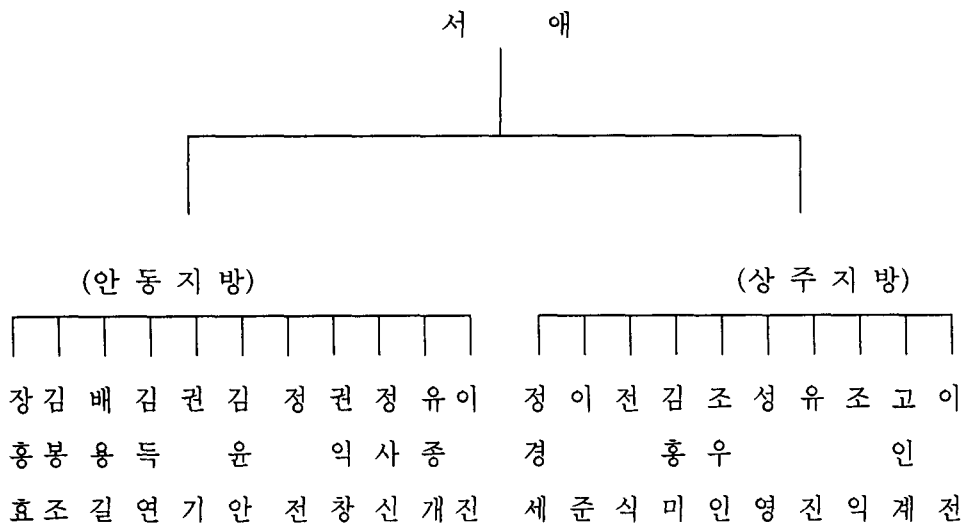
66) 『수암집』, 『여지도서』, 『서애집』 등에서 종합.

67) 『가휴집』, 『선조실록』, 『영남인물고』 등에서 종합.

68) 『월봉집』, 『국조인물고』, 『서애집』 등에서 종합.

을 읽으면서 산수를 즐기는 한편 향촌사회에 향약을 실시함으로써 유학사상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였다.69)

이상으로 서애가 상주목사로 재직하면서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 비교적 두드러진 이들을 골라 그들의 사상 경향과 퇴계학맥의 계승 양상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들은 대체로 상주 鄕校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서애가 상주 지방 수령으로 재직하던 16세기는 성리학 사상이 향교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보급된 시기이다. 향교의 교육적 기능이 당시 활발하였던 것은 書院의 건립이 아직 확산되지 않았던 때문으로 생각된다.70) 지금까지 고찰한 서애의 안동과 상주 지방의 문도들을 알기 쉽게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69) 『월간집』, 『국조인물고』, 『여지도서』 등에서 종합.

70) 정구복, 「16세기 고문서를 통해서 본 향교의 제의와 학령」, 『조선시대사학보』9집, '99, 68쪽.



## V. 맺음말

지금까지 「서애 柳成龍과 안동·상주지역의 퇴계학맥」이란 주제로 고찰하여 보았는데, 이제 이것을 요약 정리함으로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서애는 아버지 柳仲郢이 퇴계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가학적 배경도, 성리학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그 자신도 젊은 시절 직접 도산으로 퇴계선생을 찾아가 그 곳에 머물면서 『근사록』 등과 같은 성리학 서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를테면 사환 도중 자주 사직 상소를 올리고 귀향했다는 것과 산수를 즐기면서 학문을 좋아한 것 등이 서로 비슷하다. 더욱이 그들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거나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중앙의 청요직을 버리고 지방 수령을 자원했다는 사실도 너무나 흡사하다. 이와 같이 퇴계학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서애가 그의 고향 안동과 이웃 고을 상주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성했으며 그들은 어떻게 활동하여 퇴계학맥을 이어갔는가를 다시 살펴보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안동과 상주는 경상도 북부 지방에 소재하는 큰 고을로서 일찍부터 文風이 진작된 군현이다. 이러한 전통을 토대로 서애는 고향 안동에서는 사환 도중 틈틈이 귀향했을 때나, 은퇴 후 비교적 시간이 많은 시기에는 원 지정사나 옥연서당 등을 중심으로 안동지역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안동에서 기른 제자 가운데 비교적 두드러진 사람은 경당 장홍효, 학호 김봉조, 용만 권 기, 갈봉 김득연, 금역당 배용길, 매창 정사신, 동리 김운안, 호양 권익창, 마암 이 진, 송오 정 전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상주 지역에서는 서애가 당시 지방 수령의 위치에서 향교를 중심으로 직접 교육을 담당하거나 이를 독려하여 儒風을 떨치게 했던 것이다. 상주에서 사제관계를 맺은 사람 가운데 비교적 뛰어난 사람을 들자면 우복 정경세, 창석 이 준, 사서 전 식, 성극당 김홍미, 매호 조우인, 태정 성 영, 수암 유 진, 가휴 조 익, 월봉 고인계, 월간 이 전 등이다.

서애는 이들을 퇴계 이항으로부터 교육받은 정통 성리학 이론과 실천 방법으

로 다시 가르쳤으므로 이들 대부분은 퇴계를 사숙하여 재전제자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애의 양 지방 제자들은 同類의식을 갖고 낙동강을 오르내리면서 두 지역 士林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했던 것이다.<sup>71)</sup> 그결과 안동, 상주 두 지역은 당시 영남의 60여개 고을 중에서 가장 성리학이 활발히 보급되어 이름난 士族들이 크게 늘어나 鄕案에 등재된 사람들도 제일 숫자가 많게 되었다.<sup>72)</sup>

특히 위의 두 지역 서애 제자들은 퇴계와 서애에 대하여 비판적인 대북파 인사들에 강하게 저항하는 동시에, 회재와 퇴계 그리고 서애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확대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여 말할 것은 서애의 수제자인 우복 정경세는 울곡 이이학파에 속하는 동춘당 송준길을 사위로 맞이함으로써 두 학파간의 대립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71) 5현 문묘종사소청이나 병산서원에 서애의 위패 봉안 사업 및 대북파인 정인홍 일파에 대한 공격 등에 자주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집 편찬에 있어서 문장 교류도 활발하였다.

72) 『우복집』, 권15, 서, 상주향안록서.